

“수업집중도 높일 것” vs “학력저하 불보듯”

광주 '9시 등교' 추진 논란

고교, 초·중과 동일 적용은 대학입시 현실 무시 주장도

경기도교육청이 '9시 등교'제도를 시행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교육청도 이의 도입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설 방침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1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등교시간 조정을 요구하는 여론이 있어 이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지역은 4년 전 장휘국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정규 수업 이전에 시행되던 '0교시 수업'을 전면 금지함에 따라 초·중학교는 8시30분 전후, 고등학교 1·2학년은 8시, 고등학교 3학년은 7시40분에 등교하고 있다. 수업은 9시에 시작하지만 먼저 등교해 아침 자율학습 또는 EBS방송 시청을 했다. 하지만,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등교시간을 오전 9시로 늦추고 제주·강원·전북 등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잇따라 '9시 등교'를 추진하면서 광주시교육청도 재검토에 들어갔다.

김성영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의 9시 등교 이후 일선 학교에서 등교시간 조정에 관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여론을 수렴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면 시간대 조정은 어느 정도까지인지 등을 파악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0교시 수업 금지'의 이유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아침식사 시간을 보장해 성장을 돕고, 충분한 아침 휴식과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오전 수업의 집중도를

끌어올리려 교육력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특히, 김 교육감은 “최근 일부 사립고등학교에서 0교시 수업 부활 기미가 보이고 있다”고 지적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고교 학부모와 일부 교육단체에서는 '9시 등교'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9시 등교가 시행되면 학생들의 학습시간 단축으로 학력 저하를 초래하고, 학교장의 고유권한인 학교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대학입시를 앞둔 고교마저 초·중학교와 동일하게 9시 등교를 적용하는 것은 대학입시라는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여기에 버스시간 조정과 통학버스 운전자들의 생계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등학교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내년이면 아들이 고3인데 9시에 등교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확실적으로 도입한다면 아침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새벽반 입학확인이라도 다녀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9시 등교 논의는 시작 단계로 아직 아무 것도 확정된 게 없다”며 “광주의 교육현실에 가장 맞는 등교시간을 찾아보자는 의미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전북지역 모든 학교 등교시간 30분 늦춘다

내달부터 초·중·고교 시행

경기지역에 이어 전북지역에서도 각급 학교의 등교시간이 10월 1일부터 길게는 30분가량 늦춰질 전망이다.

전북도교육청은 15일 “다음 달부터 초·중·고교의 등교시간을 30분 늦추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며 “등교시간은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강제제 아닌 권고사항이지만 각 학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능을 앞둔 고 3학생의 경우는 학교장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정육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등교시간 늦추기는 김승환 교육감의 ‘아침이 행복한 학교’ 공약에 따라 학생들의 잠 잘 권리 보장과 과중한 학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

라며 “각 학교에 동참을 적극 독려하겠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오는 27일까지 학교별로 교육공동체 의견을 수렴해 자율적으로 등교시간을 정하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행에 따른 혼란을 고려, 맞벌이 가정과 농어촌지역을 포함한 조기등교 학생을 위해 도서실 개방과 동아리 활동 활성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형택 학교교육과장은 “우리 청소년의 평균수면은 국제 권고 기준에 턱없이 모자란다”며 등교시간을 늦춰 충분히 잠 자면 주의·집중력이 높아지고 학업 성취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도교육청이 최근 도내 740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등학교 81%가 7시40분~8시20분, 중학교 68%가 8시~8시20분, 초등학교 97%가 8시~8시40분에 등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16 해질 18:39
달출 23:56 달짐 13:23

맑고 선선한 바람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많겠다.

◇지역별 날씨 (℃)

광주	구름많음	18/28	보성	구름많음	16/28
목포	구름많음	19/27	순천	구름많음	18/29
여수	구름많음	21/27	영광	구름많음	17/27
나주	구름많음	16/28	진도	구름많음	18/26
완도	구름많음	19/27	전주	구름많음	16/28
구례	구름많음	15/29	군산	구름많음	16/26
강진	구름많음	17/28	남원	구름많음	15/27
해남	구름많음	17/28	축산도	구름많음	19/24
장성	구름많음	16/27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1.0
남부	면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1.0
남해	앞바다	북동~동	0.5~1.0	북동~동	0.5~1.0
서부	면바다	북~북동	1.0~2.0	북동~동	1.0~2.0

◇물때

		밀물		썰물	
목포	출몰	12:08	06:58		
	몰출	00:00	19:53		
여수	출몰	07:37	01:12		
	몰출	20:39	14:31		

◇주간 날씨

17(수)	18(목)	19(금)	20(토)	21(일)	22(월)	23(화)
☁	☁	☁	☁	☁	☁	☁
18/25	17/26	17/27	16/28	17/27	16/28	16/28



◇생활지수

식중독	62
운동	40
빨래	70

24면 증면 발행·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나무 숲에 둘러싸인 초등생들 15일 광주시 북구 문산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광주호 생태공원을 찾아 자연해설사로부터 물가에 살고 있는 나무와 풀 등에 대해 설명을 들으며 숲길을 거닐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선거운동 도운 동생은 기소됐는데... 형은?

검찰 현직 도의원 기소 여부 곧 결정

주범일까, 단순한 심부름꾼인가. 전남도의원 동생(47)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검찰 수사력이 형인 도의원의 공모 여부까지 미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현재 도의원이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 도의원이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5일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마옥현)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는 A의원 동생은 공무원인 수행비서와 운전원 등과 함께 형의 선거를 도우려고 선거구민에게 화장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 이대로라면 A의원 동생 주도로 지난 1월 설을 앞두고 기초의원 선거에서 도의원으로 출마 예정인 형을 위해 담양군 대전면, 봉산면 이장·부녀회장 등에게 3만 2000원짜리 선크림 94개를 제공한 혐의에 대한 선

고만 앞두고 있게 되는 셈이다. 검찰은 그러나 사건 배후에 A 의원이 있다는 정황 등을 잡고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기소 여부에 따라 주범과 가담자가 바뀌게 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A 의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기소하게 되면 사건을 병합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미 기소된 당사자들이 검찰 입장과 달리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 지는 미지수다. 검찰도 오죽했으면 재판부에 “A 의원을 기소하지 못할 경우 기소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달라”고 했다.

한편, 검찰은 A 의원 동생에 대해 징역 2년 6월, 다른 공무원 2명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선고할 방침이지만 A 의원의 기소 여부에 따라 선고 기일은 유동적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천년의빛 영광 | 아름다운 상사화 그릴음이 번진다

제14회 영광 불갑산 상사화 축제

2014. 9. 19 (금) ~ 21 (일) 장소 | 전남 영광 불갑사 관광지

영광군		영광군교육지원청		교육장 김 관 수	
군 수	김 준 성	농협중앙회 영광군지부	지부장	김 충 현	
부군수	정 근택	농협중앙회 중흥사업소	소장	정 종 대	
		영광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구 희 우	
		영광군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김 영 복	
		영광군 산림조합장	조합장	정 용 재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	지사장	최 광 선	
		한국전력공사 영광지사	지사장	김 영 의	
		정주세마을금고	이사장	정 법 목	
		영광농업협동조합	조합장	박 준 화	
		백수농협협동조합	조합장	강 대 상	
		군남농협협동조합	조합장	황 일 태	
		염산농협협동조합	조합장	강 병 원	
		굴비농협협동조합	조합장	김 남 철	
		영광중합병원 공립	이사장	조 용 호	
		영광노인전문요양병원	병원장	오 승 균	
		영광기독교 신하병원	이사장	김 경 옥	
			기독병원장	이 만 재	